

여야 지방선거 후보 국회의원도 사전투표 독려

김관영 후보 투표하면 이긴다 역설, 새로운 전북 강조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 “사전투표 적극 참여” 당부
이원택 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 사전 투표 독려 나서

강영희 기자

27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 앞서 여야 지방선거 후보들이 앞다퉈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독려활동에 나섰다.

앞서 지난 24일 대학로를 순회하며 사전투표를 주문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사전투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내 최연소 도지사가 그리는 전북의 새로운 변화를 강조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 역시 “이번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6.1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이라며 “선거 당일 투표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사전투표 기간을 이용해 꼭 투표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 후보는 특히 “이번 선거는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부 정책과 함께 발 맞춰갈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필요한 선거”라며 “전북도민 성공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박빙 판세가 감지되는 도내 시군 지역 단체장 후보 및 지방의원 후보들 역시 사전투표

를 목청이 터져라 외쳤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반민주당 정서 확산 속 무소속 후보를 향한 기대감이 퍼지면서 도내 다수 시군 지역은 물론 광역, 기초의원까지 민주당 소속 후보 진영의 위기감이 큰 상태다.

열세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를 역설하며 애당심을 자극했다.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총선 정국으로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내 국회의원들의 간절함도 배가 된 상태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최서연 신유정 김세혁 이성국 등 청년 후보들과 함께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투표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원택 의원은 김제와 부안을 오가는 열정적인 지원 유세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6일 유세에서 사전투표를 유권자들에게 주문하면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뤄냈던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켜서는 안된다”며 “철세정치, 야합정치 등 낡은 구태정치를 심판하고 전북 정치의 혁신을 위해 민주당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관영 도지사후보와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 합동연설 26일 열린 부안군 더불어민주당 합동 연설회에서 김관영 도지사 후보와 이원택 국회의원이 권익현 민주당 부안군수 후보를 비롯한 부안군 지역 민주당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와 사전투표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부안 고평화 기자

신영대, “친환경선박 연료 개발 플랫폼 구축”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플랫폼 구축에 국비 100억 원 확보

국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 의원이 정부 공모 사업과 관련한 군산시 선정을 견인하는 등 굵직한 의정활동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신 의원은 26일 “군산시가 산업부의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됐다”는 낭보를 전한 뒤 “친환경 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플랫폼 구축사업은 대기 및 해양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 대신 LPG, 바이오디젤, 암모니아, 하이브리드와 같은 저·무탄소 대체연료를 사용한 추진시스템의 핵심 성능을 검증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에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선박 개발 및 보급의 15%

인 52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저탄소 대체연료 운행 선박에 관한 연구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군산시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군산시는 공모 선정으로 올해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약 5년간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성능 검증을 위해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는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170억 원 규모로 나머지 비용은 도비와 시비를 충당해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군산 시내 기업에 친환경 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의 관련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 보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군산시는 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하여 군산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강영희 기자

정당명 표기 않고 후보명만 거론, 여론조사 논란

A언론사 여론조사 관련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 캠프 의도성 주장
“민주당명 생략, 무소속 후보 지지율 올리려는 의도” 선관위 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성주 후보측이 정당명을 언급하지 않은채 여론조사를 진행, 결과를 공표한 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선관위 조사를 촉구했다.

정성주 후보 선대위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A사가 24일 진행한 김제시장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정성주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을 밝히지 않아 그 의도에 대해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 민주당 후보자의 정당명 배제는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을 빼고 여론조사를 진행할 경우 심각한 여론의

조작과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5월 15~16일 여론조사(전주mbc등 4개사의뢰,리얼미터)에서 김제시의 민주당 지지도는 71.4%에 달했고 무당층은 6.4%에 불과하다.

정성주 후보 선대위는 이와 관련해 “무소속 후보의 지지율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A사가 의뢰해 진행된 여론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라북도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영희 기자

“이학수 후보 태양광 의혹 수사해야”
김민영 후보, 신속한 수사 필요 주장

무소속 정읍시장 김민영 후보가 26일 오전 정읍시청 브리핑 룸을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김 후보는 본인에게 제기됐던 ‘산림조합 배임 혐의’가 허위사실로 명명백백히 드러났으며, 반면 상대 후보인 이학수 후보의 태양광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읍시장에 출마한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24일 정읍경찰서로부터 김민영 후보를 상대로 산림조합 배임 고발장이 최종 각하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공천과정에서부터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수없이 해명했지만 공천권을 휘두른 몇몇 사람들은 귀를 닫았고, 그로 인한 공천과동의 모든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공천심사과정에서도 단10분의 해명기회가 주어졌지만 제대로 해명조차 못했으며 이문제가 이렇게 파장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순간까지도 분식회계나 배임이니 하면서 저를 헐뜯는 모든 행위는, 어떻게든 선거에 이기고자 벌이고 있는 허위사실일 뿐”이라며 “잘못된 공천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에게 자행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읍=박기수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후보 캠프앞

학력위조 의혹 제기 1인 시위

가정사 문제 공개 비판했던 A씨 농성 중

더불어민주당 최경식 남원시장 후보 캠프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학력, 가정사 문제를 공개 비판했던 A씨가 26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최 후보 캠프 앞에 텐트를 설치, 최 후보의 사과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은 “신고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시청 일대가 조금 소란스러웠다”고 전했다. A씨의 단식 농성은 최 후보가 전날 가진 TV 토론에서 본인을 ‘전과 8범’이라고 지칭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독자는 “본인은 교도소 한번 가본 적 없는데 최 후보가 A씨를 공갈 사기범, 흉악한 전과자로 만들어 분노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최경식 후보측은 후보자 비방과 명예훼손,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남원=김종완 기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소기업 소상공인 복지에택!
펼쳐라 노란우산
열려라 희망자산

홍보대사
양지은

홍보대사
김준현

창립 60주년
중소기업중앙회

휴양 시설 지원

영화·가족사진 지원

건강 검진 혜택

경영·세무 상담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